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 제 관 : (808) 422-1040
- 사 무 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mailto: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279호

2025년 12월 14일(가해)

미사 안내	평일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	주일	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 (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
연령회		병자성사,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연령회장: 김미아 헬레나 (808) 291-7811		



## 오늘의 미사

## 대림 제3주일

▶ 1독서 : 이사야서 35,1-6ㄴ.10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 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 셨다. ◎
▶ 화답송 :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 2독서 : 야고보서 5,7-10	▶ 복음 : 마태 11,2-11

성가 ▶ 입당: 88 ▶ 봉헌: 210, 211 ▶ 성체: 178 ▶ 파견: 481

① 12월 21일(일)은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② 12월 21일(일)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오후 2:30)가 있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③ 12월 봉성체 안내

12월 봉성체는 12월 18일(목, 오전) 서쪽 지역, 12월 19일(금, 오후)  
동쪽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④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12월 21일~27일)

⑤ 매월 넷째 주 12월 28일(일) '한끼 나눔'

⑥ 미사 참석시 명찰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⑦ 12월 24일 성탄 전야 미사 - 저녁 7시 (헌금, 구유예물)

12월 25일 성탄 대축일 낮 미사 - 오전 10시 30분 (헌금)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 오전 10시 30분 (헌금)



사목공지



## 사목위원회

### ※ 교육분과 공지

교리교육 주제

- 12월 14일: 17과 입문성사 ② 성체성사
- 12월 21일: 18과 치유성사, 고해성사와 병자성사

시간: 오전 9시, 장소: 예비자 교리실

교리에 관심있는 신자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 구역 및 단체

### ① 레지오 연차 총 친목회

일시: 12월14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 ② 다락방 모임

일시: 12월 14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룸

### ③ 가이무키 구역 모임

일시: 12월 14일(일) 오후 5시  
문의: 황 마리아 220-0822

### ④ 하와이카이 구역 모임

일시: 12월 21일(일) 오후 6시  
문의: 김글라라 349-2654

### ⑤ 와이파후 구역 모임

일시: 12월 20일(토) 오후 5시  
장소: 예비자 교리실  
문의: 안 마르첼라 391-8347

### ⑥ 연령회 모임

일시: 12월 21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 ⑦ 펠시티&아이에아 구역 모임

일시: 12월 21일(일) 오후 5시  
문의: 김사비나 721-1055

### ※ 사목평의회 공지사항

각종 행사와 관련된 사진을 성당 웹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초상권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또는 보호자께서 대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신자분들께서는 사진 사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공지

### ■ 故 한순애 발바라 자매님께서 11/18일 향년 95세로 선종하셨습니다.

장례미사: 12월 23일(화) 10시 30분, 성당  
연도: 9시 30분

### ※ 성당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김국희 다니엘라, 김은주 마르가르타



## 헌금

12월 13/14일 Retirement Fund for Religious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12월 6/7일 : \$10,732/ 12월 8일:\$926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총 348명
	주일헌금	교무금	12/8	특별헌금		
	\$3,700	\$5,860	\$926	\$1,172		

<b>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b>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b>브라이언 오토 바디샵</b>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b>뷰티터치 (BEAUTY TOUCH)</b>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 808-271-4802
<b>New York Life</b>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b>Ginzawon (긴자원)</b>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b>묘지매매</b>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 808-798-5100

## ※ 미사: 미사 해설

### 시작 예식(1) : 시작 예식의 의미와 입당에 대해서

미사의 시작을 알리고, 당일 미사의 목적을 알려주며, 나아가 한자리에 모인 교우들의 일치를 이루도록 돕는 역할. 이것이 바로 미사의 “시작 예식”입니다. 어떤 만남이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처럼, 하느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미사에서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작 예식”을 통해 그 만남을 시작합니다. 곧 시작 예식은 예수님의 거룩한 잔치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한 첫 만남의 순간,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시작 예식은 “입당(입당성가/제대인사) - 성호경 - 인사 - 참회 - 자비송 - 대영광송 - 본기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입당입니다. 사제는 제의실에서 제의를 갖추어 입고 미사 준비를 마친 다음, 제단으로 나와 예를 표합니다. 이때 신자들은 “입당성가”를 부릅니다. 입당성가는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러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제(대사제 그리스도의 대리자)에 대한 환영의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 신자들이 부르는 입당성가는 미사를 시작하고, 함께 모인 이들의 일치를 드러내며, 전례 시기와 축제의 신비로 그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들을 사제와 봉사자들의 행렬에 참여시키기 위해(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47항)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일 입당할 때 성가를 부르지 않는다면 입당송을 신자들, 또는 그들 가운데 몇 사람, 또는 독서자가 낭송할 수 있습니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48항).

입당 예식의 전체적인 의미는 입당을 통해 미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제와 함께 마음으로 제단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사제가 신자들과 함께 입당행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제가 봉사자들만의 행렬로 변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입당의 의미까지 퇴색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사제만이 행렬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제의 행위이기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대리자와 함께 공동체의 잔치에 행렬한다는 점을 의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당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미사 전례의 입당 노래는 끝까지, 아니면 적어도 2~3절까지 충분히 부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구원의 신비를 거행할 준비를 하게 할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당성가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입당 때에 부르는 성가는 전례력에 맞는 곡을 택해야 합니다. 절대로 성가대나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의 선호도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곡되어서는 안됩니다.



알아둡시다

## ※ 대림 제3주일 강론 요약본

대림 제3주일, ‘가우데테’ 주일은 기쁨을 회복하라는 초대입니다. 성탄이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더 깊이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감옥에 있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라고 묻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했던 요한이었지만, 마지막으로 확신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눈먼 이가 보고, 걸지 못하던 이가 일어서며,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 자비의 행동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요한의 위대함을 칭찬하십니다. 그의 위대함은 능력 때문이 아니라 겸손과 진실함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 충실했습니다. 대림 시기에 우리 역시 마음의 길을 정돈하여 주님을 맞아야 합니다. 교만과 미움의 골을 메우고, 관계를 회복하며, 마음을 곧게 펴는 것이 대림의 회개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살아감으로써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정직함, 자비, 따뜻함, 배려와 같은 삶의 태도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웃에게 “하느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더불어 대림 시기는 자선과 사랑의 실천이 무척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선은 단순한 물질 나눔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친절, 시간을 내주는 배려, 외로운 이에게 건네는 작은 관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그 자리에서 이미 주님은 오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려 할 때 두려움과 의심을 느끼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의혹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께 대한 신뢰 안에서 용기를 내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화해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의 길 위로 오십니다.

대림의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세례자 요한처럼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을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선과 사랑을 통해 기쁜 소식을 드러내며, 계명을 실천하는 삶으로 성탄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길 위에 오시어 평화와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기를 청합니다. 아멘.

권지훈 베드로 신부

<b>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b>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b>최 니콜 부동산</b>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b>메디케어 보험</b>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b>광고 문의</b> 사무실 808-422-1010	<b>A'ALA Meat &amp; Seafood Inc</b>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열 사무엘 samseo@aalametandseafood.com	<b>보나 최 부동산</b>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